

사랑과 성의 논리에 대한 지적 탐구

또하나의 문화 역음 「새로 쓰는 성 이야기」 외

정진경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

사랑과 성은 최근까지도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불모지였다.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등 사랑과 성을 주요 주제로 다루어낼 수 있을 듯한 학문에서도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현대문화에서 사랑과 성에 부여되는 지대한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이는 특이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시와 소설과 노래가 사랑타령으로 넘쳐흐르고, 방송과 인쇄 매체의 광고에서 모든 것은 성으로 통하여, 현대인은 마치 사랑과 성에 일생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사랑과 성’의 학문적 탐구 도외시

현대인에게 이토록 중요한 이 문제를 학문에서 도외시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의 이유로는 사랑이라는 것이 극히 비이성적이고 예측불가능한 현상으로서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들 수 있다. “첫눈에 반하고, 하루라도 못 보면 눈이 멀 듯하고,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나도 몰라”라는 식의 사랑에 대한 신비주의적 도식을 학문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수용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랑이나 성을 대중문화에서나 노래할 비속하고 하찮은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젊은 아이들이나 여자들의 사랑타령 같은 것을 학문적으로 탐구할 가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신비한 것이든 하찮은 것이든 간에, 사랑과 성에 대한 학문적인 규명의 결여로 상업문화를 통하여만 연된 사랑과 성에 관한 우리 시대의 인식과 관행은 학계에서 제대로 분석되고 비판되지 못한 채 넘어왔다.

1960년대 이후 서구의 학계에서는 여성해방적 시각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많은 논의를 새로이 불러일으키면서 사랑과 성, 결혼과 가족이 드디어 본격적인 학문적 탐구의 주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권력, 조직, 경쟁, 공격, 소외...’ 등등 전통적이고 남성적인 사회과학의 주제들의 긴 줄의 끝에 ‘사랑’이 출현한 것이다.

최근에 ‘또 하나의 문화’에서 펴낸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와 「새로 쓰는 성 이야기」는 이제 우리 학계에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사랑과 성의 문제를 다루어낼 수 있을 만큼 논의가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하나의 문화는 ‘남녀가 진정한 벗으로 협력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커나갈 수 있는

상업문화를 통하여 만연된

사랑과 성에 관한 우리시대의 인식과

관행은 학계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못해 왔었다. ‘또하나의 문화’에서

최근 펴낸 두 권의 책은 우리시대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환상과

성적 쾌락에 대한 신화들을 분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사랑과 성을 되찾을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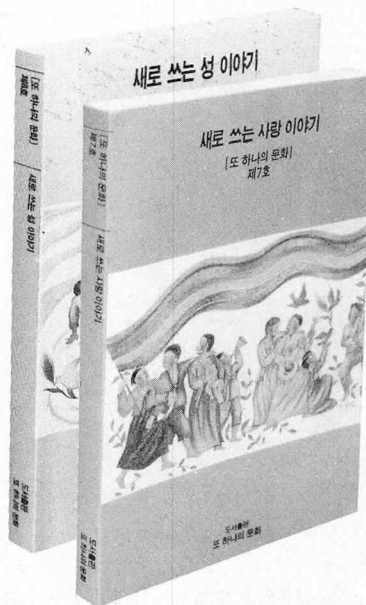
사회를 지향하며, 하나의 대안문화를 이루어 간다’는 취지하에 1984년부터 젊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를 시작으로 하여 직장여성들을 위한 「열린 사회, 자율적 여성」, 문학인들을 위한 「여성해방의 문화」,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문화 지배문화」, 현행 교육제도를 바로잡아 보려는 「누르는 교육 자라는 아이들」, 뒤처 다거리 일이 존중되고 아이들이 소유되지 않는 사회를 그리는 「주부, 그 막힘과 트임」 등의 책을 해마다 펴내왔다.

이번에 펴낸 두 권의 책은 우리 시대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환상과 성적 쾌락에 대한 신화들을 분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사랑과 성을 되찾을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을 모색해 내고 있다.

결혼, 성적 쾌락에 대한 신화 분석

에리히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강렬한 열중, 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사람들은 사랑의 열도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왔는가를 입증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밑 문단에서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지금 외로움에 떨면서 사랑에 온갖 희망을 거는 많은 젊은이들의 실상을 잘 드러내준다. 어느 대학생의 술회를 들어보자.

“고등학교 때 그 힘든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든 요인 중의 하나는 이성에 대한 낭만적인 기대였다. 마침내 대학에 들어왔다. 그러나 내가 꿈꾸어왔던 낭만적인 사랑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이성에 대한 안타까운 기대 때문에 소비했다. 이성에 대한 집착은 나를 인간관계에 있어서 편협하게 만들어 버렸다. 즉 이성에 대한 생각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빼앗아간 것이다. 이제 이성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이 결단 후에 찾아드는 허전함을 과연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단 말인가?”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에서는 이런 ‘사랑’을 여지없이 해부해 보인다. 권두에 실린 논설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산물로 간직해온 사랑과 결혼, 그리고 성에 대한 생각이 실은 하나의 문화적 구성물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고도의 정보화 기술을 토대로 하는 현대사회에서의 권력에 의한 사회적 통제가 강압적인 기제보다는 문화적 기제, 즉 새로운 욕망을 부추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적극적 관심을 쏟게 함으로써 이루어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이 책에 실린 논설, 집중연구, 적응과 성장의 수기, 창작물들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선형적이고 맹목적인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각본들을 폭로하고, 건강한 사랑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살려가고자 하는 진솔한 노력들을 담아내고 있다.

「새로 쓰는 성 이야기」는 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인간억압과 소외, 그리고 해체 현상을 다루고 있다. 논설과 현장연구에서 성에 대한 봉건적 무지 상황에서부터 성을 특정형태로 언설화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타자화되고 소외되는 탈근대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여러 양태로 늘어나는 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금기시된 성,

순간적 쾌락의 추구, 남성우월적 성관계, 국가 권력에 의한 출산력 통제, 성폭력과 강간을 부추기는 상업문화를 고발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성에 대한 욕구와 경험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무지할수록 오히려 쉽게 천박한 성적 쾌락만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문화의 함정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두 권의 책에서 가장 매력있는 읽을거리는 20대의 남대대학생으로부터 80대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남녀별로 모아놓은 생생한 체험수기들이다. 급변해온 우리의 현대사 속에서 각기 다른 사랑과 결혼과 성의 각본을 가진 한 시대를 살면서 겪어낸 절절한 이야기를—사랑에 빠지고, 성문제로 고민하고, 헤어지고, 결혼하고, 시집살이 하고, 아이를 낳고, 싸우고, 다시 보듬고, 신화가 깨어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이 사랑해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깊은 감동을 주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건강사회를 위한 본격 해부

건강하지 않은 사회는 사회구성원을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만든다. 우리 시대에 그 ‘무엇’은 바로 성과 사랑이며, 이에 대한 환상과 집착은 사람들을 폐쇄적이고 소극적으로 만들어 공동체적인 뿌리를 내려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해부가 시작되었다.

〈편집자 주〉

이 글의 대상이 된 「새로 쓰는 성 이야기」 등은 출판저널 제97호(92. 1.5 발행)에서 이미 서평(집필자 강숙자)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이 글을 신는 것은, ‘또하나의 문화’측에서 강씨의 서평에 대해 느꼈다는 여러 문제들을 지면을 통해 지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강씨의 서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아쉽다.